

선과 면, 그리고 빛의 조화를 꿈꾸다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종호

철저한 시장 조사와 트렌드 스터디를 통해 유니트한 공간을 창조해내는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종호. 국내 최고가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삼성동 I-Park 펜트하우스, 호텔에 새로운 공간 개념을 도입한 Park Hyatt Hotel, 서초 아크로비스타 등이 모두 그의 손길을 거쳐 탄생되었다. 선과 면, 빛을 통해 공간을 그려내는 (주)디자인스튜디오의 김종호를 만나보았다. 에디터 | 이금희 · 사진 | 노현우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마케팅 분석을 통해 트렌드의 변화를 이해하고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주)디자인스튜디오의 김종호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직원들에게 트렌드 스테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완성된 디자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작품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의미와 개념에 대한 철저한 스테디를 통해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디자인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가 반영된 성숙한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이자 (주)디자인스튜디오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디자인의 개념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이런 감각을 키우다 보면 한발 앞서 트렌드를 내다보는 혜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 그는 이러한 작업이 자신의 콘텐츠를 늘여가는 수단인 동시에,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끊임없는 연구와 작업에 대한 치밀한 스테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개념 정리 등 그의 작업에는 필요한 수단들이 많다. 물론 언제나 이 모든 작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런 식의 작업을 불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매뉴얼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는 말한다.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트렌드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다양한 모임을 통해 패션, 문학 등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들과 함께 글로벌한 세계의 트렌드와 접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리더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이 같은 노력이 주는 자신감일까. 그는 직원보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더 당당한 대표이다.

그는 가끔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면 그는 “디자인은 자신감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자신 있게 답한다. 디자인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유형의 상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자신이 만들어놓은 작품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프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 문화의 가치를 위해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탄생된 건축물이 현대산업개발 I-Park, 포스코 the#, 서초아크로비스타, 논현 로열팰리스, 금호건설 어울림, 대림 e-편한 세상 등과 같은 주거 공간과 Park-Hyatt Hotel, 용산 민자 역사 내 'Space 9' 과 콘코스 광장 등이다. 국내 유명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섬세한 인테리어 감각과 독특한 공간 미학, 첨단을 달리는 감성이 바로 이들 건축물들의 공통 분모다.



디자이너 김종호 대표는 1990년 미국 코넬 대학원 도시 및 환경설계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미시간 대학원 건축, 환경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유원건설에 입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8년 (주)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최근 전미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ASID)가 발간하는 '세계의 뛰어난 디자이너' 라는 책에 북미, 남미 출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12명과 함께 소개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차세대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그가 말하는 건축 디자인은 '개성(Individuality)' 과 '기능(Function)' 의 복합체다. 건축은 개인의 성향을 표출하는 동시에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인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건축주와 이용자에게 삶의 가치와 누림의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건축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는 요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09년 완공 예정인 호치민 시의 금호아시아나 플라자 프로젝트 호텔 설계를 준비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와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티스트로 경영자로, 그리고 트렌드의 선두주자로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개성과 미래 가치가 반영된 공간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싶다는 그의 모습에서 (주)디자인스튜디오의 밝은 미래가 투영되는 듯하다. ☺